

“에코델타 데이터센터로 부산 산업구조 재편 앞장”

채창호 대성문 대표

최근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지역 중견 건설사 (주)대성문의 행보가 큰 화제다. 대성문은 IBK투자은행, 중소기업은행, 메테우스자산운영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주)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PFV를 설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건설에 나섰다.

지난 2월 부산시와 ‘데이터산업 육성 투자협약’을 체결한 4개 컨소시엄 중 최대 규모인 1조 66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만 6300평(5만 394.8㎡) 부지에 서버 15만 대 이상을 수용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짓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사업비만큼이나 업계 주목을 끄는 점은 지역 건설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인프라 분야에 뛰어 들었다는 사실이다. 지역 건설업체가 일찍이 시도한 적 없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채창호 대표는 이런 행보를 ‘퍼스트 펌프’에 비유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용기를 내 제1번 먼저 바다에 뛰어 들고, 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성문의 DNA’라는 의미였다. 대성문은 부산 영도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라발스호텔을 짓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사 ‘타이탄인베스트’와 스페인 올리브 브랜드 ‘라치타나코리아’를 설립하는 등 끊임없이 신사업을 개척해 왔다.

채 대표는 “고금리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유통성 위기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흑둔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며 “더 이상 단순



(주)대성문 채창호 대표는 “부산이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갖춰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종진 기자 kij1761@

그린데이터센터PFV 참여 4차 산업혁명 인프라 분야 지역 건설사 최초로 시도

국내의 임대계약 제의 잇따라

수주 사업으로는 건설업의 미래가 없는 만큼, 개발형 건설업에서 활로를 찾다가 AI로 대변되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로 데이터센터산업으로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부산 산업구조에 걸맞은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의 자론도 이 같은 결심을 뒷받침하게 됐다. 채 대표는 “부산이 주력 전통산업에만 매몰돼 있으면, 양질

의 일자리 부족으로 지방 소멸만 가속화될 뿐이다”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고효율 첨단 기술이 접목되는 에코델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우리 컨소시엄에 4조 20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2만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그가 부산이 관련 기반과 인력을 갖춘 최적지라는 점에서 에코델타 데이터센터 사업 성공을 확신한다. 채 대표는 “부산은 해외로 나가는 해외 광케이블 90% 이상의 기점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국내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끼고 있어 전력 수급도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며 “벌써부터 세계적인 펀드사나 유력 공공

기관에서 임대 계약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갖춰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물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다. 채 대표는 “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충이 필수”라며 “현재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력의 92%를 수도권에서 쓰고 있는데, 최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에서 생산한 전력은 우선적으로 지역 산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한국전력 등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부산일보, 김영도 4기 독자위원장에 감사패

부산일보 김진수 대표이사 사장은 2일 부산 서면 월간초밥에서 김영도(동의과학대 총장) 부산일보 제4기 독자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도 독자위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부산일보 제4기 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독자위원회를 이끌었다. 또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신공항 등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안해 지역사회 여론 조성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도 독자위원장은 “훌륭한 위원들과 함께한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부산일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사장은 “부산일보 독자를 대표해 좋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이날 4기 독자위원회 이화형(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부위원장장을 비롯해 강석호(마이스부산 대표), 김소연(법무법인 예주 대표변호사), 남영희(부산대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 강사), 라광현(동아대 경찰수사학과 교수),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심재은(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 윤미숙(부산교사노조 위원장), 조시영((주)명진TSR 대표), 김민지((주)브이드림 대표) 위원 등 10명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강성할 기자 shgang@

대선주조,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 후援

대선주조(대표 조우현)는 지난날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35회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후원했다.

‘부산중증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사)부산지체장애인지원단체협의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1987년 15살을 시작으로 총 210쌍이 연을 맺었으며 대선주조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58쌍의 결혼식을 후원했다.

행사에는 대선주조 차재영 상무가 조우현 대표 특별공로패 수상, 축사, 후원금을 전달했고, 대선주조 왕진민 대리는 장애인 인권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 공로로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5쌍의 부부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백년기약을 맺었다. 이 중 차정환(66), 윤명숙(55) 부부는 2018년 불치역장애인지원관에서 만나 7년째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간 끝에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 강성할 기자

익명 기부자, 사상구 모라3동에 라면 50상자

부산 사상구 모라3동(동장 이미영)은 지난날 28일 익명의 기부자가 라면 50상자(93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기부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미영 모라3동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준 기부자에게 감사드리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nicedi@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정용환 제15기 동기회장 취임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제15기 동기는 지난날 26일 기장군 해운대비치골 프렌치리조트 클럽하우스 3층 홀에서 원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정용환(주)제이더블유이엔지 대표)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한 정용환 회장은 “15기 동기를 위해 헌신해 오신 임영하 초대회

장, 정병석 2대 회장과 역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동기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원우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신임 회장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15기 동기들이 마음 터놓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병석(주)비트즈 대표) 이임 회

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도와 주신 집행부와 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임 회장인 정용환회장이 2024년을 멋지게 항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집행부에는 수석부회장 겸 골프회장 이일기((주)퍼스트인 대표) 사무총장 손정호(부산에한방병원



병원장) 총무이사 최혜영(법률사무소 엘앤씨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재무이사 박진옥(J.A.U 750 주얼리 대표) 감사 김주현(세무사김주현사무소 대표)가 선임됐다. 강성할 기자

해양진흥공사, 대한상의 주관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지난날 28일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Forbes) 코리아 주관 ‘사회공헌 대상’에서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설립 6년 차인 해진공은 ‘희망더(+)/해’라는 슬로건 아래 장학지원, 문화 인프라 조성, 창업기업 지원 등 다

양한 방향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해양 관련 지역사회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 등이 지역사회 공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를 시작한 해양산업 미디어아트 ‘시대를 향해’는 해양을 소재로 한 양방향 체험형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해진공은 올해에도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해양 관련 독서 공간을 마련하는 ‘작은 해양도서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진공은 부산 지역 9개 공공기관이 공동 조성한 부산경제활성화



송현수 기자 songh@

오늘의 운세 (음 2월 25일) ©-대길 ○-길 △-평범 ×-흉 ※따는 음력 기준입니다 박정화 철학인 051-863-8306

<p>96년생 주동하여 일을 벌이기에 역량이 모자라니. 84년생 양심을 속이는 일은 경계해. 72년생 안목을 구하지 말고 때로는 모자라게. 60년생 들고 도는 법이니 자만하지 말고 겸손의 미덕을 가질 것. 48년생 주위 환경이나</p> <p>금전△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다. 36년 애정△ 생 부족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잘 해결될 듯.</p>	<p>97년생 친구와의 만남이 활력이 되니 친구와 함께. 85년생 행동을 빨리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73년생 몸은 피곤해도 내부적 에너지는 충분하니. 61년생 교만하지 마라. 세상에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49년생 호미</p> <p>금전○ 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애정○ 수 있다. 37년생 목은 문제가 될 건강○ 만하게 해결될 조짐.</p>	<p>98년생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듯. 86년생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할 때. 남을 배려하면 좋은 하루가. 74년생 이제는 결단을 내야 할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62년생 어려움이 지나간 듯. 기지개를 펴도 좋다. 50년생 점점 좋아지니 기대해 봐 애정△ 도. 38년생 화합에 신경 써야. 온화한 말 한마디면 만사형통.</p> <p>금전△ 애정△ 건강◎</p>	<p>99년생 불평불만은 금물.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을 듯. 87년생 잘된다 우물대지 말고 힘들다 울상 짓지 말라. 75년생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위기를 넘겨라. 63년생 경제적인 면이 부족해도 조바심을 내지 마라. 51년생 작은 것도 소중히 해야 한다. 39년생 어수선하게 벌인 일을 잘 마무리해야.</p> <p>금전△ 애정△ 건강◎</p>	<p>00년생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과민 반응은 보이지 마라. 88년생 요행을 바라지 마라. 현실에서 구하면 무난하다. 76년생 몸과 마음이 피곤하니 휴식이 필요한 날. 64년생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살펴 피면서 소박한 행복을 구해 보아라. 52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새 희망이 보인다. 40년생 관대함이 필요하다. 마음을 넓게.</p> <p>금전△ 애정△ 건강△</p>	<p>01년생 기회가 오고 있으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89년생 바쁘게 움직여라. 재운이 좋으니 얻는 것이 많겠다. 77년생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음의 기회로 삼으면 될 듯. 65년생 해답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구해 보도록. 53년생 속전속결의 형태로 일이 이루어지니. 41년생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니.</p> <p>금전○ 애정○ 건강○</p>
<p>02년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목표를 삼을 때. 90년생 답답한 시기가 지나가니 조금만 더 버티어 보는 것이. 78년생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본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66년생 동상이몽일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바라보아</p> <p>금전○ 야 한다. 54년생 내가 가진 것을 애정○ 주변에 베풀어야 할 때. 42년생 건강○ 많이 움직여도 실속은 적으니.</p>	<p>03년생 내 안의 재능과 에너지를 맘껏 이끌어내 보아라. 91년생 지치고 힘들어도 기운을 얻을 곳이 있으니 잘 찾아보도록. 79년생 내 속의 야망을 드러내지 마라. 67년생 생 뜻이 맞는 이가 생기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55년생 별도의 대</p> <p>금전△ 애정△ 건강△</p>	<p>04년생 선배나 뒷사람에게 기대어보려 하나 결과는 신통치 않을 듯. 92년생 즐거운 상상을 하며 미래를 기대해 볼 것. 80년생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68년생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 56년생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44년생 뜬말만 지인과 연락을 취해 보라.</p> <p>금전△ 애정△ 건강△</p>	<p>05년생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 발짝 내디딜 것. 93년생 주변 인맥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베풀어 두는 것이. 81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 69년생 본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이루어 간다. 57년생 변동 수 있으니 주동하여 계획대로 이끌어내라. 45년생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p> <p>금전△ 애정○ 건강◎</p>	<p>94년생 의욕이 솟구치니 하는 일마다 저절로 된다. 82년생 바깥 활동이 왕성할수록 얻는 것이 많다. 70년생 내가 진 집이 무겁지 않 목격지가 눈앞이다. 58년생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듯. 금전은 희생 양상. 46년생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 애정○ 일 듯. 34년생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짜증이 날 수도.</p> <p>금전△ 애정○ 건강◎</p>	<p>95년생 뒷사람에게 물어보면 좋은 해답을 얻을지도. 83년생 때를 살피고 흐름을 쫓아가면 기회는 오 온다. 71년생 가다 보면 길이 보이니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59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뒷방에 보답을 받을 듯. 47년생 생 투박의 수업을 기대해보는 애정○ 을 듯. 35년생 형식과 명분에 치우친다면 잃는 것이 많을 듯.</p> <p>금전○ 애정○ 건강○</p>